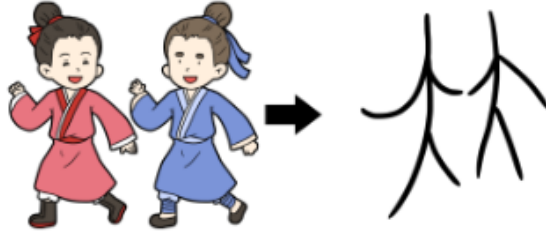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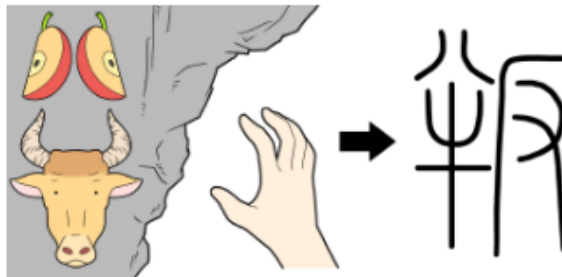
伴

짝 반:

伴자는 '짝'이나 '동반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伴자는 人(사람 인)자와 半(반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半자는 소의 머리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절반'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사실 '동반자'라는 뜻은 𠂔(함께 갈 반)자가 먼저 쓰였었다. 𠂔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한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이 매우 친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伴자가 '동반자'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연인을 '나의 반쪽'이라고도 하니 어찌 보면 '절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伴자의 의도도 쉽게 이해되기는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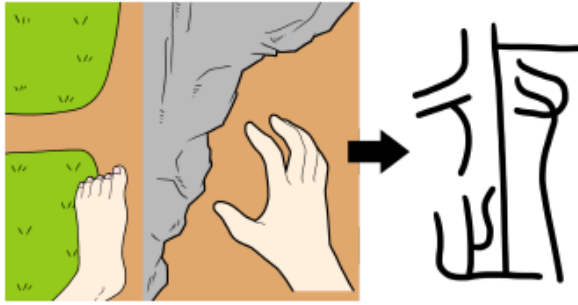
叛

배반할  
반:

叛자는 '배반하다'나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叛자는 半(반 반)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半자는 '절반'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叛자는 '배반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이미 反자에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 半자를 결합해 '배반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남을 배반하는 짓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그래서 叛자에는 '상도를 어지럽히다'나 '어긋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返

돌이킬  
반:

返자는 '돌아오다'나 '돌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返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사물을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이키다', '되돌리다'라는 뜻이 있다. 返자는 이렇게 '되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反자에 辶자를 결합한 것으로 '돌려보내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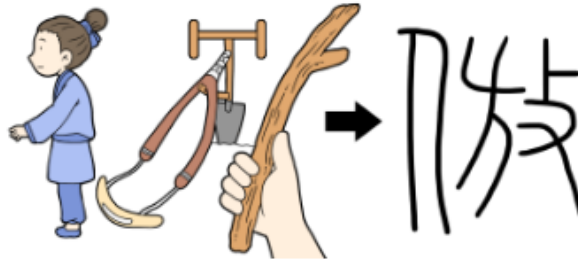
返

소전

返

해서

형성문자①



倣

본뜰 방

倣자는 '본뜨다'나 '닮다', '본받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倣자는 亻(사람 인)자와 放(놓을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放자는 '내치다'나 '내쫓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倣자는 본래 '(사람이)닮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亻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倣자는 사람이 닮거나 비슷한 것을 뜻하는 글자로 만들어졌지만, 후에 '내가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본받다'나 '배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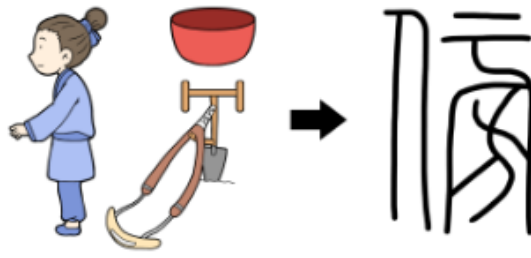
倣

소전

倣

해서

형성문자①



傍

결 방:

傍자는 '결'이나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傍자는 人(사람 인)자와 旁(결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旁자는 '두루'나 '결', '옆'이라는 뜻이 있다. 傍자는 이렇게 '결'이나 '옆'이라는 뜻을 가진 旁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결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결에 있는 사람'은 중심의 바깥에 자리한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傍자는 '모시다'나 '가까이', '결'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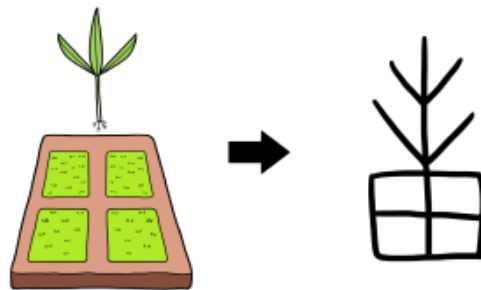
傍

소전

傍

해서

회의문자①



邦

나라 방

邦자는 '나라'나 '수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邦자는 丰(예뻐 봉)자와 邦(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초목이 무성하게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우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邦자를 보면 田(밭 전)자 위로 풀이 올라오는 丰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밭에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람들이 '터전을 잡은 곳'이라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田자 대신 邑자가 쓰이게 되었는데, 의미 역시 확대되어 '나라'나 '수도'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邦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한(漢)나라 때는 태조 유방(劉邦)의 이름과 겹치는 것을 피하고자 같은 뜻을 가진 國(나라 국)자가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邦

갑골문

邦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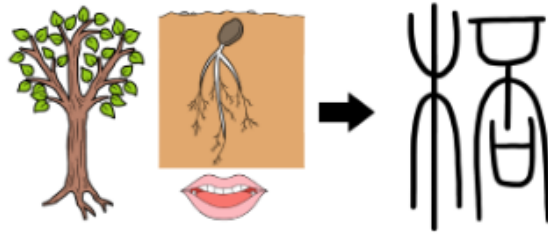
邦

소전

邦

해서

회의문자①



杯

杯자는 '잔'이나 '술잔'을 뜻하는 글자이다. 杯자는 木(나무 목)자와 丩(아닐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잔을 사용했으니 木자는 잔의 재질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栴(술잔 배)자가 '술잔'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여기서 丩(아닐 부)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술잔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해서에서는 丩자가 들어간 杯자로 바뀌긴 했지만, 글자의 형태로만 보면 본래는 '잔'을 표현하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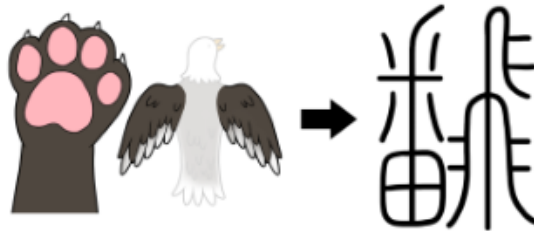
栴

소전

杯

해서

형성문자①



翻

翻자는 '번역하다'나 '뒤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翻자는 番(차례 번)자와 飛(날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番자는 짐승의 발자국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翻자는 본래 새가 몸을 뒤집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새는 하늘을 날며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 몸을 뒤집는데, 翻자는 그것을 뜻했었다. 그러나 후에 새가 몸을 뒤집듯이 외국어를 모국어로 바꾼다 하여 '번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翻자는 飛자가 아닌 羽(깃 우)자가 들어간 翻(날 번)자가 쓰일 때도 있는데, 모두 같은 뜻이다.

번역할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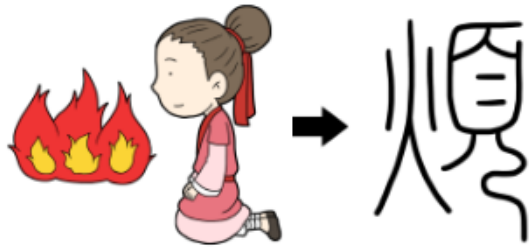
番

소전

翻

해서

회의문자①



煩

번거로울  
번

煩자는 '번거롭다'나 '번잡하다', '성가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煩자는 頁(머리 頁)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頁자는 사람의 머리를 크게 부각하여 그린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강조해서 그린 頁자에 火자가 더해진 煩자는 머리에 열이 오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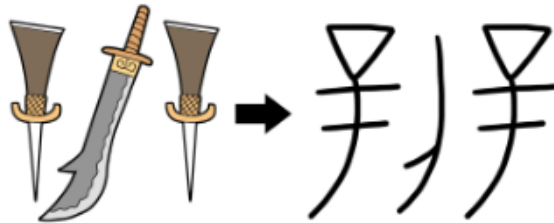
煩

소전

煩

해서

회의문자①



辨

분별할  
변:

辨자는 '분별하다'나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辨자는 辨(따질 변)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辨자는 죄인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따지다'나 '고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죄인 둘이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모습에 刀자를 더한 辨자는 잘못을 '분별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辨자에 쓰인 刀자는 둘 사이를 갈라 잘못을 판가름한다는 뜻인 것이다.

辨

금문

辨

소전

辨

해서